

新世代의 人間學

田中眞澄 지음 / 김경제 옮김

‘리더의 인간관계’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가정, 직장, 그룹 등 크고 작은 조직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방침들을 소개한 책이다. 리더십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리더십의 기본, 리더의 대화능력, 리더의 생애설계,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 등을 수록하고 있다.

정동출판사/A5신/214면/4500원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천주교와 개신교 학자들의 공동연구 모임인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회장 전택부)의 연구논문 제3집. 어문학, 신학, 역사 등 세부분야의 논문 17편을 수록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19세기 국어 발전에 끼친 그리스도교의 영향’ ‘한국 전통 종교 및 종교심성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한국천주교회 기원 문제’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북한 그리스도교 관계 논문도 아울러 수록했다.

기독교문사/A5신/430면/6500원

서서 외친 말들

장지원 지음

‘본국의 정치상황이 도저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을 때’ 붓을 들었다는 저자의 첫 칼럼집. 유신체하의 ‘73년부터 ’89년까지 ‘평화신문’ ‘민족시보’ 등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총 8장으로 묶었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의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염원과 남성주도 사회의 횡포에 대한 비판, 한국에서의 반미움직임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고뇌 등이 솔직하고 간결하게 그려져 있다.

범우사/A5신/274면/4000원

강물은 흘러도 바윗돌은 남는다

閔丙秀 지음

우리나라 고전에 담긴 명구절들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풀이한 책. 「용재총화」 「해동속소학」 「아은집」 「목은집」 등의 한담집이나 설화집, 문집에서 조상들의 삶에 스며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주제별로 묶어 모았다. ‘부귀보다는 평범한 행복을’ 회귀했던 선조들의 생활과 ‘남매간에도分別이 있어야’ 한다는 언행기록 등 한국인의 정서와 민속을 읽을 수 있다.

宇石/A5신/278면/4200원

빈자의 나무

강유일 지음

「배우수업」 「타악기의 계절」 「거리에 비 내리듯」 등 꾸준한 작품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의 새 장편소설. 동갑내기 독문학도로 만난 주인공 영화와 의경이 결혼후 각자의 삶에서 ‘언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며 살아간다. 언어가 진실을 소유하지 못할 때 다만 음향에 불과하며 의미전달이라는 거대한 언어의 힘도 진실된 삶의 도구로서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

우리문학사/A5신/268면/3800원

線上の 모스크바(上·下)

마틴 크루즈 스미스 지음 / 김갑수 옮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가 됐던 추리소설로서 원제는 「고르키 공원」(GORBY PARK). 소련의 경찰조직에서 이단적 존재로 설정된 주인공 주임수사관과 적대국인 미국 실업가의 대결을 둘러싸고, 반체제적인 성향의 여인, KGB장교, 뉴욕시경형사 등 소련과 미국사회를 넘나들며 소설은 전개된다. 간결한 문체와 풍부한 위트 등이 작품의 흥미를 더한다.

남도/A5신/각 300면 내외/각 3800원

그대 영혼을 불사르리

허근욱 지음

61년 자전적소설 「내가 설 땅은 어디냐」를 발표하면서 등단, 방송드라마를 집필해왔던 작가의 수필집. 북한최고인민회의 초대대장을 지낸 허헌의 딸이라는 이유로 10여년간을 가명으로 숨어살다 결국 신분이 드러나 오랜 수감생활을 살아야 했던 분단이데올로기의 대표적 희생자였던 작가는 30여년간 틈틈히 써온 글에서 일상사의 작은 사건들로부터 사회제반문제에 이르기까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광출판공사/A5신/292면/3800원

못다한 얘기 못다할 이야기

이상현 지음

전 조선일보기자였던 저자가 저널리스트들의 애환, 특종과 낙종의 갈림길, 그 뒷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아 엮었다. 제3공화국과 제5

공화국 시절 세상을 뒤흔들었던 ‘육여사 저격 사건 현장’ ‘10·26, 0시의 취재비상’ ‘김계규가 처형되던 날, 구치소의 숨은 얘기’ 등의 비화와 스포필드박사와의 최후 인터뷰, 보도금지된 유괴사건, 일본인 위령탑 사건 등 공개되지 않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 뒷얘기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三人行/A5신/290면/4300원

우리들의 영혼이 사랑을 만났을 때

박현령 지음

여류사 동인으로 시집 「지신님, 지신님」을 출간한 여류시인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수필집.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몸살 앓던 젊은 시절부터 교수의 자리에 선 현재의 삶에서 겪었던 다양한 인생이 책의 1장 「상그리다! 영원한 유포피아」와 2·3장에는 직업인과 주부의 역할에서 체득한 일상이 그려져 있고, 4장 「예술담협」에는 작가·작품론을 모은 글들이 수록돼 있다.

강천/A5신/278면/3500원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J. 허버트 알철 지음 / 강상현·윤영철 옮김

미 인디애나대학 언론학교수인 저자가 언론이란 본질적으로 체제의 산물이며 권력의지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쓴 저서. 오늘날의 통념화된 언론의 갖가지 규범적 가치 역시 권력과 언론의 자기보존적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배양된 사회통제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 요지로, 저자의 광범위한 학문적 배경을 짐작케 한다.

남남/A5신/410면/7500원

작가수첩

알베르 카뮈 지음 / 김화영 옮김

「이방인」으로 떠올려지는 작가의 작품구상과 여러가지 단상이 적힌 노트(제3권)를 옮긴 번역본. 단편적인 생각과 창작계획·초안·다른 작가의 작품감상 등을 기록해둔 이 수첩에는, ‘여름’ ‘전력’ ‘적지와 왕국’ 등의 작품이 완성돼가는 과정이 보여지는데, 한 위대한 작가의 창작과정을 들여다보는 재미와 함께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의 고뇌를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책세상/A5신/336면/45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지음

태극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기타연주자로 알려진 저자가, 열두마리의 동물에 인간사의 온

갖 행태를 빗대어 쓴 우화집. 호랑이부터 시작해 돼지에 이르는 12마리의 짐승을 소재로 해학을 곁들인 이 우화집에서 저자는, “가족간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애 그리고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한다. 부록으로 ‘청소년·선생님·학부모를 위한 명상의 세계’를 수록.

민족사/A5신/220면/3600원

한국어 현상-의미 분석

신현숙 지음

다양한 한국어 현상에 관련되는 의미분석방법을 주로 장이론을 바탕으로 삼은 논문들만 모아 엮은 책. 언어현상은 인간과 관련되는 물리현상 중 가장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언어현상을 분석하는 데 어떤 모형이 가장 적절한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한국어의 의미와 관련되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장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상명여대출판부/A5신/328면/5000원

무크

슬픈시학

[시]▲만리동 고개 외 4편 / 김재덕 ▲못을 뿔으며 외 4편 / 박현호 ▲내 하루의 집 외 3편 / 이복희 등

[번역시]네루다·1 ▲스무개의 사랑의 시, 그리고 절망의 노래 / 추원훈 옮김

[기획비평]▲해방의 시학, 불임의 언어 / 신현철 ▲불임증후군의 세대여, 부디 안녕! / 이진우

[번역소설]곰스크로의 여행 / 프리츠 오펜트 만

[서평]허공에 지은 집 / 박현호